

물에 뜨는 섬유

우리 나라의 네이텍스가 새시대에 선도할 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Polyolefin을 활용한 직물을 개발, 신시장 개척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.

가벼운데다 열전도성이 좋고 건조성이 뛰어난 Polyolefin을 사용, 기존의 면 100% 진(Jean)소재를 대체할 직물을 개발한 네이텍스는 야드당 4볼대의 고가에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.

이 소재는 착용시 수분의 이동과 건조성이 월등한데다 폴리에스터보다 40%이상 가벼워 착용감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.

Polyolefin 소재의 가공과 가연, 직물개발 등 일체의 개발 독점권을 갖고 있는 네이텍스는 가격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주문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소재의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후관리까지 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.

또 패션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가공 등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에도 주력, 웬만한 가공소재는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있다.

이 회사는 “일본 바이어와 국내 캐주얼 전문 브랜드 등에서 주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”며 “그러나 가격을 낮춰달라는 수요자가 많아 안타깝다”고 전했다.

네이텍스는 지난해 나일론 투웨이 스판덱스직물을 날염하는 개발성과를 거두기도 했다.